# ストノけの



군산 도시재생 소식지











## 재생 알림

##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 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 도시재생지원센터



#### 역할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 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조)

#### 위치



## 도시재생 小考

# 도시재생 지속에 대한 바람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도시가 갖는 속성이나 특성을 쉽게 설명하거나 도시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근대와 현대의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은 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모델을 제안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서 도시를 자동차와 같은 기계 장치처럼 기능 적이며 효율적인 대상으로 보기도 하였고, 도시를 생물과 유사한 유기체처럼 보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모델은 물론 각 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2개의 모델 중 상대적으로 도시를 생물과 같이 보는 시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쇠퇴해가는 도시를 점진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되살리고자 합니다. 고장 난 부 품을 통째로 제거하고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과는 다르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에 따라 도시를 바라보는 모델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적고 지역 주민 친화적이며 장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 표지사진

도시숲과 산명시장을 찾은 시만들이 들러 즐길 수 있는 컨테이너 가설점포가 세워졌다. 중앙동 도시재생뉴털사업의 일환인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한 팝업스토어 형태의 감각적인 공공창업공간이다.

강가시거리상인회로 뭉친 입점 상인들과 기존의 신영시장상인회가 조화롭게 상생해 나가김 기대한다.



#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2. **02. 22~ 03. 18**.



2022. 02. 22. 화요일

해신동 주민협의체 2월 정례회의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3. 04. 금요일

중앙동 교통정온화사업 현장 미팅 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서&도시재생과



2022. 03. 14. 월요일

야시장 목로주점 행사 준비 주민협의 <sup>삼학시장</sup>



2022. 03. 16. 수요일

소룡동 주민협의체 회의 소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03.03. 목요일

강가시거리상인회와 신영시장상인회 중앙동 도시재생 공공창업공간



2022. 03. 07. 월요일

째보선창 인심축제 준비회의 째보선창번영회&로컬프랜들리



2022. 03. 15. 화요일

**군산 예비사업 점검** 전라북도 ·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2022. 03. 16. 수요일

22년 제3회 임원회의 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



2022. 03. 03. 목요일

소룡동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선정위원회 주민&소룡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시재생과



2022. 03. 10 목요일

해신동 폐선로 상가 주민 간담회 도시재생과



2022. 03. 16. 수요일

구암동 새뜰마을사업 업무회의 도시재생과



2022. 03. 18. 금요일

강가시거리상인회 회의

중앙동 도시재생시업 공공창업공간

###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경암동

# 주민역량강화교육 - 마을자산조사 수료!

주민 조사활동, 걸음마였지만 마을가치 느끼며 두근두근 경암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로 모여 재생활동 이어가겠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기은 팀장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대상 시설 물운영관리에 이어 마을자산조사 주민역량강화교육이 2 월 15일 성료되어 수료식을 시행했다.

주민들의 마을자산조사 참여의 가치는 전문성보다는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에 있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 에서 교육과정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 더 불어 전문가 그룹의 마을자산조사 결과도 주민들과 매 시간 공유해 왔다.

철길마을에 국한되어 있던 주민들의 마을자산에 대한 인식이 철길마을 주변 경관과 경마교, 미로 같은 골목길, 100년 넘은 암수 은행나무집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 3형 제 이야기, 구암초등학교의 축구부와 동물 조형물로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인적자원과 경제자원도 톺아보면서 지 속적인 마을재생활동에 대한 욕구를 키웠다. 교육과정은 끝났지만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 자산을 찾아보고 활용방 안을 계속 고민할 예정이다.

이날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수료자를 대상으로 경암동 도시재생 주민활동을 이끌어갈 주민협의체 총회



준비 위원 신청서를 받았고, 이후 협동조합교육과 주민 협의체 활동의 자발적 참여 의향을 조사했다. 20여 명의 교육 수료 주민이 주민협의체 총회 준비 위원으로 활동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주민협의체 활동과 협동조합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교육과정은 끝났지만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 자산을 찾아보 고 활용방안을 계속 고민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 거버넌스

## 해신동 상가번영회 &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업무협약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백종화 팀장



수십 년간 군산의 해산물 도소매업이 활성화된 해신동은 원도 심 속에 방치된 폐철도를 활용하여 해산물 테마형 관광지로 활성 화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신동에서 활발 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이번에 해신 상가번 영회와 협약서 체결은, 수산물 장인들의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프 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차후 해신동 주 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해신동 자생 단체와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 제4기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출범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이하 우체통거리)는, 2022년 2월 25일 제4기 임원진을 선출하고, 3월 8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배학서 회장

우체통거리는 2017년 군산시와 경관협정을 체결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회에 걸친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이하 손편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도 제5회 '손편지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10년 무상사용 계약으로 제공한 건물을 우체통거리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했으며, 홍보관 2층 공간은 동네문화카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체통거리에는 전국 도시재생사업지역 관계자와 주민공동체가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도적인 주민공동체 활동의 성공사례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어 온 지난 2년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체통거리 대부분의 사업체 매출이 감소되지 않았고, 젊은 운영자의 사업체가 계속들어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으며, 군산뿐만 아니라, 전 국 도시재생 관계자와 공동체들의 롤 모델로서 부끄럼 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째보선창협동조합 첫 정기총회 개최

2월 24일 16:00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2년 째보선창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째보선창협동조합은 중앙동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째보선창번영회에서 21년 전북 최초 도시재 생형 예비마을기업을 신청하면서 조직된 법인이다.

총 1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권남균 이사장 과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 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총 조합원 14명 중 9명 참석, 성원 충족되어 진행, 21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심의는 중앙동현장지원센터 문병일 팀장이 정리한 수지계산서와 월별 수입지출 내역을 출력하여 나누어 드리고 설명하였다.

총 출자금 28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여 제품 판매 수익으로 800여만 원, 지출 부분에서 판매 수익의 원재료 35%, 인건비 35%, 순수익은 30%이다. 첫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30%의 순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 모두 박수로서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22년에는 신규 마을기업 진입과 새로운 품목 개발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다.

조합원 관리 규정 제정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제정하였다. 기타 안건으 로는 인건비 산정과 할매 맥아박강정 가격 인상 건으 로 열띤 토론을 하여 인건비는 종전과 같이 시간당 1만 원, 개당 2,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 과 의무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조합원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22년을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도시재생뉴딜 중앙동

# 공공창업 공간 강가시거리상인회 오픈!!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고덕자 팀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창업 공간 조성사업은 비어 있는 철도부지에 다양한 연령층의 창업자들을 모집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선발 과정을 거쳐 총 9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신영시장 주차장 옆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3월 중 모두 순차적으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에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군산 특산품으로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던 중 이렇다 할 특산물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군산을 홍보할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업선된 최고의 군산특산물을 모아 어릴 적 선물로 꿈꾸던 종합과자선물세트에서 착안하여 군산종합선물세트 판매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농수산물을 엄선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군산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며, 판매의 일정 부분은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두려움이 없던 전 '40살이 되면 꼭 창업하겠노라' 다짐하였기에 10여 년 몸담고 있던 직장에 사표와 함께 창업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생과일과 야채를 이용한 디저트 도시락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시장조사와 마케팅 전략 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저트카페는 바쁜 아침 시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직장인, 집에서 일과를 해결해야 하는 집콕족에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달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꾸준한 판촉 활동을 통해 고정 고객을 확보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도시재생 이런 곳이!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공창업공간 입점

201 복이공방		계단	202 공용공간
101	102	게근	103
고군산꽃게장	고군산꽃게탕		찬희네홍어

203 느림美	계단		204 2층카페
104 군산담다		105 기쁨	106 방자전

# 군산시 선양동 해돋이마을, 2022년 새뜰마을사업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월 11일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밝혔다.

전국 도시지역 중 10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군산시는 선양동 해돋이마을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대상지는 해돋이공원 주변 주거환경이 취약 한 지역으로 축대 정비 등 안전확보와 생활인프라구축, 노후주택정비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을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선양동 해돋이마을은 2016년 산북동 개원·미창마을, 2020년 구암동 장둑·외산마을, 2021년 삼학동 금광마을에 이은 도시지역 네 번째 새뜰마을사업 지역이다.



#### 도시재생 이런 곳이!

# 봄을 부르는 군산 우체통거리 꽃화분

우체통거리 한 음식점 앞에 작은 텃밭 형태의 화단이 새롭게 조성됐다. 음식점 영업주께서 직접 작업하셨고, 이웃 주민들이 힘을 보탰다고 한다.

유독 우체통거리에 가면 상가 앞에 꽃화분이 많이 놓여져 있다. 이는 2017년 경관협정체결을 할 때 '가게 출입구, 창가 등에 꽃 등을 심은 화분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협정서에 담았고, 주민들이 이 약속을 계속 실천해나가기 때문인 것 같다. 거리경관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저력이 느껴진다.

'우체통거리에서 주민들이 가꾼 아름다운 꽃들을 만끽 하는 봄날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다고 봄!'



## 함께 알아가요

## 경관협정이란?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근거하여 우리동네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나 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고 서로 약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민들은 경관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동네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전하고, 개선 이 필요한 공간은 이웃과의 의견공유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에 대한 작은 생각들이 모여 약속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 동네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출처, 정관협정메뉴얼 2015 우리가 만드는 우리 동네 정관약속〉

- 발 행 일 2022년 3월 25일
- ■발 행 인 송석기
- 발 행 처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기획·편집 김기은 · 정예술

